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경기대회 - 2017》을 지도하시였다



**1 면 에서 계속**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지휘관들은 물론 비행수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 짧은 비행사들이 최우수 전투비행사와 비행술을 겨루고있는데 비행기를 잘 탄다고, 그들속에 처녀비행사들도 있는데 정말 용감하고 하시면서 전세대 전투비행사들처럼 불굴의 정신력과 결사관철의 무장기공으로 살며 투쟁하고있는 새 세대 전투비행사들이 있기에 항공군의 승리의 전통은 출기차게 이어지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의 지릴하고 열띤 경기모습을 보시며

오늘 경기대회가 지금까지 진행한 경기대회들중에서 제일 잘되였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기대회를 장식하며 기교비행이 또 다시 진행되였다.

속포가 터져오르고 관람자들의 열광의 환호로 하여 경기대회장은 세차게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경기대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는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부강조국건설의 동승이 높이 울려 퍼지는 조국의 명공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 우리의 미더운 전투비행사들이 있기에 사회주의조국의 하늘은 영원히 푸를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항공군안의 모든 비행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이 《우리는 당의 출격명령만 기다린다!》는 구호를 높이 들고 백두산훈련열풍의 불가마솥에서 비행훈련을 정상화, 생활화, 습성화함으로써 일단 최후공격명령이 내리면 일격에 대지를 박치고 날아올라 짐작의 본거지들을 초토화해버릴수 있게 준비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항공군의 싸움준비완성에서 지침으로 심아야 할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새 세대 전투비행사들의 전투적기상과 용맹을 과시한 젊은 비행사들을 만나시고 뜨겁게

고무격려해주시였으며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기대회 시상식이 있었다.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경기대회 순위를 발표하였으며 우수한 단위와 성원들에게 컵과 메달, 상장을 수여하였다.

경기대회는 노래 《우리는 출격명령만 기다린다》의 주악으로 끝났다.

경기대회가 끝나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우러러 리쳐올린 참가자들과 관람자들의 축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6월의 하늘가로 메아리쳐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영도밑에 주체적혁명국건설에서 특기

할 사변적성과들이 다발적으로, 권발적으로 일어나고 반미대결전의 최후승리가 눈앞에 다가오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성원들의 전투비행술 경기대회 - 2017》은 당의 혼련력명 5대방침을 높이 받들고 전군에 백두산 훈련열풍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일단 명령이 내리면 사회주의조선의 정의로운 진군길을 가로막아보려고 부질없이 발버둥치는 철천지원수 미제와 그 줄개들에게 무자비한 정벌의 불을 지르고야말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열적의 의지를 다시한번 힘있게 파시한 뜻깊은 계기로 된다.

본사정지보도반

